# 對중남미 원조평가와 정책 제언

**최 원 식** / 한국국제협력단 봉사기획팀장

## Ⅰ. 서언

중남미 대륙은 과거 멕시코,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하는 중미 카리브해 연안의 마야 · 아즈텍 문화와 페루 및 에쿠아돌,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남미지역의 잉카문명을 꽃피웠던 찬란한 문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석유 · 동광 · 유황 등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인구 4억 6천만 명에 총 GDP가 2조 달러에 이르는 등 경제적인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또한 최근 들어 중남미 각국의 국내 정국안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국제사회와의 신뢰관계 구축 그리고 BRICs 일원인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중남미 지역 통합 가속화는 국제사회에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잠재력과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적인 중남미 우호국인 스페인, 미국 및 EU 등 서방 선진국들은 물론 일본 ·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도 경제발전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 및 국제무역을 위한 상품시장 확보 차원에서 동 지역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 최근 들어 對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교류 및 실질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이후 대통령의 중남미 주요국가 순방 등 중남미 지역과의 실질 협력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11월 칠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와 2005년 하반기 중미에서 개최 예정인 한-SICA(한-중미 대화협의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남미 각국과의 실질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對중남미 대외 무상원조 현황과 실적을 분석하고 향후 對중남미 원조 전략 및 협력강화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중남미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나아가 실질 협력관계 강화에 일조코자 한국의 對중남미 ODA 원조사업 실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중미통합체제(SICA : Sistema de la Integracion Centroamericana/Central American Intergration System)

- 회원국(8개국) :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돌, 코스타리카, 니카라과, 벨리즈,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준회원국)
- 사무국 : 산살바돌(엘살바돌) 소재
- 종래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오던 중미 통합운동을 총괄적으로 조정, 지원하는 구심체로서 중미 통합의 법적, 제도적 기본틀을 형성하고 있으며
-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통합을 통한 중미지역의 자유, 평화, 민주주의 및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Ⅱ. 중남미 지역의 정치 · 경제 환경

## 1. 정치환경

중미지역은 독립 이후 80년대까지 군부 쿠데타와 독재정권, 심각한 빈부 격차로 인한 정치, 사회의 불안정이 반복되었으나 90년대 민간정부 수립 이후 역내 평화 및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2000년대 들어 역사 및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는 역내 결속을 통한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남미지역 역시, 과거 군부체제를 벗어나 선거를 통한 민주정부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대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 남미 주요국가에서 좌파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많은 우려와는 달리 온건하고 점진적, 실용적인 개혁 정책을 추진, 정치안정 및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중남미 국가 민선 정부들의 역내 기반 약화와 중미지역 최대 국가인 멕시코의 국내 정국불안, 남미의 베네수엘라, 페루, 에쿠아돌 등의 대통령 탄핵시도 및 전국적인 시위 등 사회불안 요소 내재는 향후 중남미지역 정치, 경제적 안정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2. 경제환경

중남미 경제는 중남미 주요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도움으로 2004년 5.5% 성장, 2005년도 4% 내외의 경제성장 등 과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경제 침체기를 벗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성장의 영향으로 중남미 대부분 국가들의 금융 및 대외채무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국제교역 성장의 둔화 및 국제

〈표1_한국의 연도별 유.무상 원조 예산 비율〉

(단위 : 백만불)

| 구분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E) |
|---|---|---|---|---|---|---|---|---|---|---|---|---|---|---|
| 합계(양자관계) | 31.5 | 45.2 | 60.3 | 60.1 | 71.5 | 123.3 | 111.4 | 124.7 | 131.4 | 131.2 | 171.5 | 206.8 | 245.0 | 299.8(E) |
| 무상원조 | 25.0 | 31.0 | 32.9 | 38.5 | 50.1 | 53.4 | 54.8 | 37.2 | 39.0 | 47.8 | 53.0 | 66.7 | 145.0 | 177.7 |
| 유상원조 | 6.5 | 14.2 | 27.4 | 21.6 | 21.4 | 69.9 | 56.6 | 87.5 | 92.4 | 83.4 | 118.6 | 140.1 | 100.0 | 122.1(E) |
| 무상원조 비중(%) | 79.4 | 68.5 | 54.4 | 64.0 | 70.1 | 43.3 | 49.2 | 29.6 | 29.7 | 36.4 | 30.9 | 32.3 | 59 | 59.3 |

※ 자료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연보), 수출입은행 2004연보

원자재 가격 조정 예상 등은 중남미 경제의 성장률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Ⅲ.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는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나누어지며 유상원조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무상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전담 수행하고 있다.

한국의 對개도국 원조는 한국국제협력단법 및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등 개별 ODA 사업시행과 관련된 법령에 의거 시행되며, KOICA에서 수행하는 대외무상원조사업은 프로젝트사업, 개발조사사업, 물자공여 및 긴급재난구호 등 개발협력사업과 봉사단파견, 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의료단파견 등 인력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KOICA에서 추진하는 무상원조 실적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

한국의 ODA 규모는 아프간 및 이라크 재건지원 계획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기준 GNI 대비 0.06%로써 OECD/DAC 회원국의 평균인 0.25%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 경제규모(GDP 세계 11위, 총 교역량 12위)와 비슷한 스페인 0.23%, 네덜란드 0.80% 및 호주 0.25%는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그리스 0.21%, 포르투갈 0.21%, 뉴질랜드 0.23%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의 무상원조 사업은 91년 KOICA 설립 이후 2003년까지 약 150개국에 674백만불을 원조하였으며, 2003년 경우 무상원조 비중이 한국의 양자간 원조 총액의 약 59%를 점유하여 우리나라의 유·무상 ODA 구성비율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OECD/DAC 회원국의 경우 무상원조 점유율이 96%이고 호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등 14개국은 100% 무상원조를 실시하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경우, 무상원조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한편 〈표 1〉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는 OECD에 가입한 1996년(12월)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오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감소되는 현상을 보여 국내경기에 매우 민감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유상원조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유·무상 원조 비율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는 유상원조의 경우 '원조' 보다는 '상환해야 할 차관'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003년 경우, 양자간 원조는 245백만불로 ODA 총액(366백만불)의 67%를 차지하였고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는 145백만불로 양자간 원조의 59%를 차지하여 1995년 이후 처음으로 무상원조비율이 유상원조를 초과하였는데 이는 이라크(2.6억불/'03~'07) 및 아프칸(45백만불/'02~'04) 재건지원 계획에 따라 무상원조 금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2. 지역별 · 국별 원조 실적

한국의 對개도국 원조실적 〈표2〉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991년 KOICA 설립초기에는 아시아지역 20.86%, 아프리카지역 23.26%, 중남미지역 15.39%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의 경우, 아시아지역이 34.57%, 아프리카지역 6.06%, 중남미지역 4.85%, 중동지역이 40.86%를 점유하여 우리의 대외 무상원조가 아시아지역에 대한 집중적 지원('91~'04 평균 36.55% 점유)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동지역의 경우, 02년도(5.3%)에 비해 03년 35.1%, 04년 40.86% 등 약 8배(총액 대비 22배) 정도의 급속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이라크-아프칸 특별지원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의 對개도국 무상원조시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에 대한 증액이 검토되어야 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무상원조금액 증가를 위한 중 · 장기 계획도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_연도별 · 지역별 무상원조 실적〉

(단위 : 천불)

| 구분 | | Total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합계 | 국가(기구) | 166(42) | 120(7) | 128(9) | 133(8) | 143(8) | 139(11) | 140(15) | 139(15) | 126(16) | 128(12) | 133(11) | 138(15) | 142(8) | 140(10) | 148(10) |
| | 금액 | 818,997 | 22,839 | 29,386 | 30,448 | 38,294 | 49,227 | 53,741 | 55,472 | 38,441 | 37,929 | 45,352 | 54,010 | 62,069 | 124,089 | 177,700 |
| | 전년대비 | | | 6,547 | 1,062 | 7,846 | 10,933 | 4,514 | 1,731 | △17,031 | △512 | 7,423 | 8,658 | 8,059 | 62,020 | 53,611 |
| 아시아 | 국가 | 23 | 19 | 18 | 18 | 21 | 18 | 20 | 19 | 22 | 21 | 19 | 19 | 21 | 21 | 21 |
| | 금액 | 299,361 | 4,763 | 5,325 | 7,481 | 11,170 | 15,482 | 18,593 | 18,596 | 11,876 | 19,043 | 22,667 | 24,654 | 28,827 | 49,450 | 61,434 |
| | 비율(%) | 36.55 | 20.86 | 18.12 | 24.57 | 29.17 | 31.45 | 34.6 | 33.52 | 30.89 | 50.21 | 49.98 | 45.65 | 46.44 | 39.90 | 34.57 |
| 중동 | 국가 | 15 | 9 | 10 | 11 | 13 | 12 | 11 | 13 | 13 | 10 | 14 | 13 | 14 | 12 | 15 |
| | 금액 | 141,277 | 526 | 839 | 1,093 | 2,561 | 2,761 | 2,549 | 4,052 | 3,721 | 1,327 | 1,304 | 1,099 | 3,290 | 43,547 | 72,608 |
| | 비율(%) | 17.25 | 2.31 | 2.86 | 3.59 | 6.69 | 5.61 | 4.74 | 7.31 | 9.68 | 3.5 | 2.88 | 2.04 | 5.3 | 35.1 | 40.86 |
| 아프리카 | 국가 | 52 | 41 | 44 | 44 | 45 | 48 | 44 | 40 | 32 | 33 | 41 | 40 | 43 | 38 | 38 |
| | 금액 | 83,013 | 5,312 | 5,976 | 5,552 | 5,826 | 7,341 | 6,871 | 5,394 | 4,910 | 2,643 | 4,570 | 4,034 | 7,174 | 6,647 | 10,763 |
| | 비율(%) | 10.13 | 23.26 | 20.34 | 18.24 | 15.21 | 14.91 | 12.79 | 9.72 | 12.77 | 6.97 | 10.08 | 7.47 | 11.56 | 5.40 | 6.06 |
| 중남미 | 국가 | 33 | 31 | 29 | 28 | 30 | 26 | 30 | 31 | 26 | 32 | 29 | 31 | 32 | 31 | 32 |
| | 금액 | 66,397 | 3,514 | 2,984 | 3,594 | 3,554 | 3,616 | 4,216 | 7,811 | 4,683 | 2,539 | 3,800 | 3,101 | 7,635 | 6,725 | 8,625 |
| | 비율(%) | 8.11 | 15.39 | 10.16 | 11.8 | 9.28 | 7.35 | 7.85 | 14.08 | 12.18 | 6.69 | 8.38 | 5.74 | 12.3 | 5.40 | 4.85 |
| 오세아니아 | 국가 | 14 | 10 | 11 | 11 | 10 | 12 | 11 | 12 | 11 | 8 | 5 | 11 | 8 | 6 | 9 |
| | 금액 | 13,857 | 878 | 1,327 | 1,083 | 1,031 | 1,422 | 1,530 | 1,719 | 821 | 671 | 476 | 642 | 732 | 738 | 787 |
| | 비율(%) | 1.69 | 3.85 | 4.52 | 3.56 | 2.69 | 2.89 | 2.85 | 3.1 | 2.14 | 1.77 | 1.05 | 1.19 | 1.18 | 0.60 | 0.44 |
| 동구/CIS | 국가 | 29 | 10 | 16 | 21 | 24 | 23 | 24 | 24 | 22 | 24 | 25 | 24 | 24 | 22 | 23 |
| | 금액 | 50,424 | 746 | 1,104 | 1,366 | 2,348 | 3,580 | 4,892 | 4,515 | 2,991 | 3,023 | 3,696 | 5,860 | 4,821 | 5,043 | 6,439 |
| | 비율(%) | 6.16 | 3.27 | 3.76 | 4.49 | 6.13 | 7.27 | 9.1 | 8.14 | 7.78 | 7.97 | 8.15 | 10.85 | 7.77 | 4.10 | 3.62 |
| 기타 | 국가 | 42 | 7 | 9 | 8 | 8 | 11 | 15 | 15 | 16 | 12 | 11 | 15 | 8 | 10 | 10 |
| | 금액 | 164,668 | 7,100 | 11,831 | 10,279 | 11,804 | 15,025 | 15,090 | 13,385 | 9,439 | 8,683 | 8,839 | 14,620 | 9,590 | 11,939 | 17,044 |
| | 비율(%) | 20.11 | 31.08 | 40.24 | 33.75 | 30.82 | 30.52 | 28.07 | 24.13 | 24.55 | 22.89 | 19.49 | 27.06 | 15.45 | 9.60 | 9.59 |

※기타는 국제기구지원, 개발인식증진비, 행정비용 및 지역구분이 불가능한 사업비 합계임(재경부 평균환율 기준, 지역별 지원실적은 KOICA 총 예산대비 실적).
※자료:KOICA 협력사업 연보 및 통계

## 3. 분야별 원조 실적

2004년도 사업분야별 지원 실적 〈표3〉을 살펴보면 공공행정분야 지원이 25.3%(44,964천불)를 차지, 2001년도 4,075천불(7.5%)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통신 14.96%(26,591천불), 교육 및 보건분야가 각각 11.42%와 10.55%의 점유율을 보여 인적자원 개발(HRD) 및 인간의 기본욕구충족(BHN)분야 등 사회 하부구조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3_1991년~2004년 분야별 무상원조 실적〉

| 구분 | | 1991 | | 1992 | | 1993 | | 1994 | | 1995 | | 1996 | | 1997 | |
|---|---|---|---|---|---|---|---|---|---|---|---|---|---|---|---|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 총계 | | 22,839 | 100 | 29,386 | 100 | 30,448 | 100 | 38,294 | 100 | 49,227 | 100 | 53,741 | 100 | 55,472 | 100 |
| 사회 하부구조 | 교육훈련 | 1,182 | 5.18 | 1,192 | 4.06 | 3,054 | 10.03 | 5,589 | 14.59 | 7,345 | 14.92 | 8,073 | 15.02 | 8,827 | 15.91 |
| | 보건 | 3,568 | 15.62 | 2,273 | 7.73 | 3,431 | 11.27 | 2,986 | 7.80 | 6,915 | 14.05 | 7,654 | 14.24 | 4,990 | 9.00 |
| | 인구정책 | – | – | 227 | 0.77 | 13 | 0.04 | 19 | 0.05 | 166 | 0.34 | 129 | 0.24 | 124 | 0.22 |
| | 식수/위생 | 39 | 0.17 | 5 | 0.02 | 279 | 0.92 | 180 | 0.47 | 1,282 | 2.60 | 376 | 0.70 | 310 | 0.56 |
| | 공공행정 | 7,331 | 32.10 | 7,016 | 23.88 | 5,858 | 19.24 | 7,514 | 19.62 | 6,064 | 12.32 | 9,095 | 16.92 | 10,608 | 19.12 |
| | 사회인프라 | 665 | 2.91 | 1,092 | 3.72 | 1,279 | 4.20 | 1,356 | 3.54 | 2,364 | 4.80 | 3,098 | 5.76 | 3,530 | 6.36 |
| 경제 하부구조 | 운송/창고 | 27 | 0.12 | 388 | 1.32 | 481 | 1.58 | 1,284 | 3.35 | 362 | 0.74 | 489 | 0.91 | 1,002 | 1.81 |
| | 통신 | 366 | 1.60 | 388 | 1.32 | 342 | 1.12 | 309 | 0.81 | 269 | 0.55 | 733 | 1.36 | 499 | 0.90 |
| | 에너지 | – | – | 399 | 1.36 | 1,095 | 3.60 | 1,259 | 3.29 | 1,458 | 2.96 | 773 | 1.44 | 920 | 1.66 |
| | 금융 | – | – | 6 | 0.02 | 13 | 0.04 | 13 | 0.03 | 35 | 0.07 | 166 | 0.31 | 43 | 0.08 |
| | 기타 서비스 | – | – | – | – | 82 | 0.27 | 191 | 0.50 | 136 | 0.28 | 232 | 0.43 | 431 | 0.78 |
| 생산 | 농림/수산 | 1,387 | 6.07 | 2,265 | 7.71 | 2,299 | 7.55 | 2,208 | 5.77 | 3,020 | 6.13 | 3,129 | 5.82 | 4,315 | 7.78 |
| | 공업/광업 | 428 | 1.87 | 930 | 3.16 | 906 | 2.98 | 1,694 | 4.42 | 2,561 | 5.20 | 2,191 | 4.08 | 4,984 | 8.98 |
| | 무역/관광 | 46 | 0.20 | 70 | 0.2 | 155 | 0.51 | 234 | 0.61 | 169 | 0.34 | 209 | 0.39 | 547 | 0.99 |
| 다부문 | 환경보호 | 24 | 0.11 | 93 | 0.32 | 45 | 0.15 | 353 | 0.92 | 278 | 0.56 | 360 | 0.67 | 389 | 0.70 |
| | 여성개발 | – | – | – | – | – | – | – | – | – | – | 61 | 0.11 | 208 | 0.37 |
| | 기타 | 514 | 2.25 | 366 | 1.25 | 1,165 | 3.83 | 1,341 | 3.50 | 1,805 | 3.67 | 1,855 | 3.45 | 1,007 | 1.82 |
| 긴급원조 | 식량/재난구호 | 866 | 3.79 | 1,488 | 5.06 | 513 | 1.68 | 932 | 2.43 | 1,133 | 2.30 | 934 | 1.74 | 698 | 1.26 |
| 기타 | 행정비용 | 6,142 | 26.89 | 10,747 | 36.57 | 8,959 | 29.42 | 9,830 | 25.67 | 12,565 | 25.52 | 12,531 | 23.32 | 10,875 | 19.60 |
| | NGO지원 | – | – | – | – | – | – | – | – | 634 | 1.29 | 669 | 1.24 | 651 | 1.17 |
| | 미배분 | 249 | 1.09 | 435 | 1.48 | 467 | 1.53 | 594 | 1.55 | 656 | 1.33 | 974 | 1.81 | 505 | 0.91 |

| 구분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 총계 | | 38,441 | 100 | 37,929 | 100 | 45,352 | 100 | 54,010 | 100 | 62,069 | 100 | 124,089 | 100 | 177,700 | 100 |
| 사회 하부구조 | 교육훈련 | 7,377 | 19.19 | 7,956 | 20.98 | 11,414 | 25.17 | 8,534 | 15.80 | 8,562 | 13.79 | 24,996 | 20.1 | 20,299 | 11.42 |
| | 보건 | 4,781 | 12.44 | 4,020 | 10.60 | 6,998 | 15.43 | 7,686 | 14.23 | 7,478 | 12.05 | 14,540 | 11.7 | 18,740 | 10.55 |
| | 인구정책 | 85 | 0.22 | 161 | 0.42 | 208 | 0.46 | 126 | 0.23 | 186 | 0.30 | 74 | 0.1 | 75 | 0.04 |
| | 식수/위생 | 402 | 1.05 | 28 | 0.07 | 145 | 0.32 | 108 | 0.20 | 666 | 1.07 | 885 | 0.7 | 1,202 | 0.68 |
| | 공공행정 | 4,534 | 11.79 | 3,562 | 9.39 | 4,855 | 10.71 | 4,075 | 7.54 | 17,960 | 28.94 | 36,386 | 29.3 | 44,964 | 25.30 |
| | 사회인프라 | 3,189 | 8.30 | 3,627 | 9.56 | 3,804 | 8.39 | 4,064 | 7.52 | 3,555 | 5.73 | 7,405 | 6.0 | 11,012 | 6.20 |

| 구분 | | 1998 |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2003 | | 2004 | |
|---|---|---|---|---|---|---|---|---|---|---|---|---|---|---|---|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천불 | % |
| 경제 하부구조 | 운송/창고 | 1,349 | 3.51 | 373 | 0.98 | 330 | 0.73 | 754 | 1.40 | 1,131 | 1.82 | 1,309 | 1.1 | 1,053 | 0.59 |
| | 통신 | 298 | 0.78 | 280 | 0.74 | 793 | 1.75 | 526 | 0.97 | 1,504 | 2.42 | 2,279 | 1.8 | 26,591 | 14.96 |
| | 에너지 | 511 | 1.33 | 270 | 0.71 | 783 | 1.73 | 536 | 0.99 | 1,069 | 1.72 | 975 | 0.8 | 5,557 | 3.13 |
| | 금융 | 116 | 0.30 | 177 | 0.47 | 184 | 0.41 | 166 | 0.31 | 187 | 0.30 | 170 | 0.1 | 136 | 0.08 |
| | 기타서비스 | – | – | – | – | – | – | – | – | 53 | 0.09 | | | 977 | 0.55 |
| 생산 | 농림/수산 | 3,533 | 9.19 | 3,361 | 8.86 | 2,756 | 6.08 | 3,494 | 6.47 | 4,872 | 7.85 | 3,676 | 3.0 | 11,126 | 6.26 |
| | 공업/광업 | 2,055 | 5.35 | 3,850 | 10.15 | 2,222 | 4.90 | 1,541 | 2.85 | 1,483 | 2.39 | 1,574 | 1.3 | 2,840 | 1.60 |
| | 무역/관광 | 325 | 0.85 | 402 | 1.06 | 685 | 1.51 | 696 | 1.29 | 736 | 1.19 | 776 | 0.6 | 973 | 0.55 |
| 다부문 | 환경보호 | 414 | 1.08 | 278 | 0.73 | 309 | 0.68 | 364 | 0.67 | 553 | 0.89 | 780 | 0.6 | 923 | 0.52 |
| | 여성개발 | 100 | 0.26 | 106 | 0.28 | 24 | 0.05 | 9 | 0.02 | 164 | 0.26 | 122 | 0.1 | 124 | 0.07 |
| | 기타 | 764 | 1.99 | 723 | 1.91 | 883 | 1.95 | 938 | 1.74 | 885 | 1.43 | 6,364 | 5.1 | 1,460 | 0.82 |
| 긴급원조 | 식량/재난구호 | 505 | 1.31 | 719 | 1.90 | 512 | 1.13 | 11,750 | 21.76 | 755 | 1.22 | 4,145 | 3.3 | 12,801 | 7.20 |
| 기타 | 행정비용 | 7,731 | 20.11 | 7,213 | 19.02 | 7,065 | 15.58 | 7,149 | 13.24 | 7,718 | 12.43 | 9,750 | 7.9 | 14,257 | 8.02 |
| | NGO지원 | 234 | 0.61 | 357 | 0.94 | 546 | 1.20 | 788 | 1.46 | 1,386 | 2.23 | 6,625 | 5.3 | 919 | 0.52 |
| | 미배분 | 129 | 0.34 | 456 | 1.20 | 825 | 1.82 | 695 | 1.29 | 1,155 | 1.86 | 1,258 | 1.0 | 1,671 | 0.94 |

# Ⅳ. 한국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현황

## 1. 무상원조 동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규모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데, 이는 일반적으로 중남미지역이 아시아지역에 비해 지리적(원거리)으로 멀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對중남미 원조비율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관심있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일본이 중남미지역을 장기적인 원자재 공급기지, 일본제품의 직접적인 수출시장 그리고 지역간 블록경제하에서의 대미 우회진출 기지로 간주, 일찍부터 중남미지역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일본 경우 중남미지역에 대한 원조비율은 JICA 원조 예산의 약 17.1% 점유(2003년도 기준)

한편, 그동안 우리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사업성과를 살펴보면, 중남미지역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 및 지리적(원거리) 조건으로 인해 원조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비교적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남미지역이 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수원태세가 양호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Local Ownership)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분야 선정시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교육, 직업훈련 등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의료보건 등 인간 기본욕구충족(BHN)분야, 사회 및 경제 하부기반시설 구축분야, IT 등 지식 및 정보격차 해소분야 등 저소득층 주민 다수가 직접적으로 원조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

로 선정하였으며, 중남미 국가 스스로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남미 국가의 자국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원조일치/Alignment)하였기 때문에 원조규모에 비해 사업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2. 무상원조 실적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는 앞의 〈표 2〉에서 알 수 있듯 총 협력사업비의 4.85%인 9,873백만원(8,625천불/2004년 기준)를 점유하고 있어 아시아 지역(61,434천불/34.57%)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규모를 지원하고 있다.

- 2002년 경우(9,545백만원/7,635천불/12.3%), 여수박람회(BIE) 유치를 위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일시적 원조증가가 있었지만 2003~2004년은 이라크-아프칸 특별지원의 영향으로 중남미지역의 원조금액은 재감소
-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상원조는 중·장기적 계획하에 원조규모가 결정되기 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매우 큼.

### 1) 사업별 실적

2004년도 對중남미 원조금액을 사업별 규모로 살펴보면 총 원조규모 8,625천불 중 프로젝트사업 37.04%, 봉사단파견 28.02.%, 물자지원 6.48%, 연수생초청 13.88%, 재난구호 2.94% 및 전문가파견 2.74%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프로젝트사업 경우, 2002년(6건/1,527천불/20% 점유) 이후 대폭 증가하였으나(03년-12건/2,809천불/41.77%점유, 04년-12건/3,195천불/37.04% 점유), 프로젝트 사업 1건당 평균 26만불로 프로젝트 규모는 아직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봉사단파견사업 또한 2002년도에 비해 규모(21명→64명)면에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봉사단 파견국가 수는 3국에 불과한 바, 글로벌 시대의 개도국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성에 맞추어 중남미지역에 대한 봉사단파견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국가별 실적

2004년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상원조는 총 원조금액 8,625천불 중 44.86%(3,869천불)가 중미지역에, 55.2%(4,756천불)가 남미지역에 지원되어 중미보다 남미지역에 대한 원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미지역 경우, 코스타리카(393천불), 도미니카(공)(122천불), 엘살바돌(305천불), 과테말라(893천불), 멕시코(1,021천불), 니카라과(313천불), 파나마(321천불) 등 한-SICA 협의체 구성에 따른 지원을 제외할 경우 대부분 10만불 미만의 소규모 물자지원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남미지역도 페루(2,957천불), 파라과이(1,029천불), 우루과이(258천불), 콜롬비아(219천불), 에쿠아돌(106천불) 등의 프로젝트사업 지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만불 미만의 소규모 물자지원 및 연수생초청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멕시코 경우, 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시적 지원

〈표4_사업별 對중남미 무상원조 실적〉

(단위: 천불)

| 년도 | 구분 | 계 | 연수생초청 | 전문가파견 | 봉사단파견 | 개발조사 | 물자지원 | 프로젝트 | NGO | 재난구호 |
|---|---|---|---|---|---|---|---|---|---|---|
| | 국가 수/건(명) | – | 24국 58명 | 7국 12명 | – | – | 24국 | 2국 2건 | – | 3국 3건 |
| '91 | 천불 | 3,514 | 259 | 34 | – | – | 2,587 | 308 | – | 326 |
| | 점유율(%) | 100 | 7.37 | 0.96 | – | – | 73.61 | 8.76 | – | 9.27 |
| | 국가 수/건(명) | – | 19국 52명 | 9국 13명 | – | – | 25국 | 2국 2건 | – | 6국 6건 |
| '92 | 천불 | 2,984 | 233 | 86 | – | – | 2,198 | 391 | – | 76 |
| | 점유율(%) | 100 | 7.81 | 2.88 | – | – | 73.66 | 13.10 | – | 2.55 |
| | 국가 수/건(명) | – | 15국 35건 | 10국 11명 | – | – | 21국 | 6국 6건 | – | 2국 2건 |
| '93 | 천불 | 3,594 | 186 | 111 | – | – | 1,557 | 1,720 | – | 20 |
| | 점유율(%) | 100 | 5.17 | 3.09 | – | – | 43.32 | 47.86 | – | 0.56 |
| | 국가 수/건(명) | – | 17국 33건 | 8국 11명 | – | 1국 1건 | 24국 | 4국 5건 | – | 1국 2건 |
| '94 | 천불 | 3,554 | 204 | 217 | – | 157 | 1,860 | 897 | – | 219 |
| | 점유율(%) | 100 | 5.74 | 6.11 | – | 4.42 | 52.34 | 25.24 | – | 6.16 |
| | 국가 수/건(명) | – | 10국 22명 | 11국 15명 | 2국 4명 | 1국 1건 | 23국 | 6국 7건 | – | 6국 6건 |
| '95 | 천불 | 3,616 | 125 | 246 | 134 | 280 | 1,727 | 977 | – | 127 |
| | 점유율(%) | 100 | 3.46 | 6.80 | 3.71 | 7.74 | 47.76 | 27.01 | – | 3.51 |
| | 국가 수/건(명) | – | 20국 62명 | 11국 15명 | 5국 19명 | 1국 1건 | 21국 | 8국 9건 | – | 3국 3건 |
| '96 | 천불 | 4,216 | 376 | 277 | 417 | 148 | 1,426 | 1,491 | – | 81 |
| | 점유율(%) | 100 | 8.92 | 6.57 | 9.89 | 3.51 | 33.82 | 36.36 | – | 1.92 |
| | 국가 수/건(명) | – | 17국 102명 | 8국 14명 | 5국 31건 | – | 25국 | 11국 12건 | – | 4국 4건 |
| '97 | 천불 | 7,811 | 569 | 317 | 568 | – | 2,279 | 3,964 | – | 114 |
| | 점유율(%) | 100 | 7.28 | 4.06 | 7.27 | – | 29.18 | 50.75 | – | 1.46 |
| | 국가 수/건(명) | – | 23국 115명 | 6국 8명 | 5국 38명 | 1국 1건 | 11국 | 8국 10건 | – | 9국 9건 |
| '98 | 천불 | 4,683 | 503 | 332 | 447 | 0.7 | 347 | 2,834 | – | 219 |
| | 점유율(%) | 100 | 10.74 | 7.09 | 8.55 | 0.02 | 7.41 | 60.52 | – | 4.68 |
| | 국가 수/건(명) | – | 32국 134명 | 4국 5명 | 3국 34명 | – | 18국 | 2국 2건 | 1국 1건 | 4국 4건 |
| '99 | 천불 | 2,539 | 513 | 198 | 434 | – | 943 | 317 | 13 | 118 |
| | 점유율(%) | 100 | 20.20 | 7.80 | 17.09 | – | 37.14 | 12.48 | 0.51 | 4.64 |
| | 국가 수/건(명) | – | 28국 138명 | 1국 4명 | 3국 34명 | – | 17국 26건 | 6국 8건 | 1국 1건 | 1국 1건 |
| '00 | 천불 | 3,800 | 508 | 207 | 648 | – | 915 | 1,484 | 18 | 20 |
| | 점유율(%) | 100 | 13.36 | 5.45 | 17.05 | – | 24.08 | 39.05 | 0.47 | 0.53 |
| | 국가 수/건(명) | – | 28국 153명 | 3국 7명 | 3국 46명 | – | 16국 32건 | 3국 2건 | 1국 1건 | 5국 5건 |
| '01 | 천불 | 3,101 | 663 | 151 | 743 | – | 697 | 646 | 20 | 181 |
| | 점유율(%) | 100 | 21.38 | 4.87 | 23.96 | – | 22.48 | 20.83 | 0.64 | 5.84 |
| | 국가 수/건(명) | | 31국 230명 | 4국 4명 | 3국 21명 | – | 27건 | 9국 6건 | 1국 1건 | 3국 4건 |
| '02 | 천불 | 7,635 | 1,061 | 131 | 994 | – | 3,828 | 1,527 | 24 | 70 |
| | 점유율(%) | 100 | 13.90 | 1.72 | 13.02 | – | 50.14 | 20.00 | 0.31 | 0.97 |
| | 국가 수/건(명) | 31국 | 27국 224명 | 5국 8명 | 3국 64명 | 1국 1건 | 21국 32건 | 12국 12건 | 1국 1건 | 3국 3건 |
| '03 | 천불 | 6,725 | 1,130 | 197 | 1,325 | 13 | 1,137 | 2,809 | 43 | 71 |
| | 점유율(%) | 100 | 16.80 | 2.93 | 19.70 | 0.19 | 16.91 | 41.77 | 0.64 | 1.06 |
| | 국가 수/건(명) | 32국 | 28국 207명 | 5국 8명 | 3국 63명 | 2국 2건 | 18국 | 12국 12건 | 1국 1건 | 6국 6건 |
| '04 | 천불 | 8,625 | 1,197 | 236 | 2,417 | 768 | 559 | 3,195 | – | 253 |
| | 점유율(%) | 100 | 13.88 | 2.74 | 28.02 | 8.90 | 6.48 | 37.04 | | 2.94 |

※ 자료: KOICA 협력사업 통계, 전문가파견사업에는 의료단 및 태권도사범 포함

〈표5_국가별 對중남미 무상원조 지원 실적〉

(단위: 천불)

| Nation | Total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지역합계(33국) | 57,775 | 3,514 | 2,984 | 3,594 | 3,554 | 3,616 | 4,216 | 7,811 | 4,683 | 2,539 | 3,800 | 3,101 | 7,635 | 6,725 | 8,625 |
| Antigua and Barbuda | 322 | 28 | 19 | 19 | 20 | 51 | 17 | 15 | 13 | 23 | 0 | 7 | 96 | 9 | 42 |
| Argentina | 310 | 0 | 111 | 46 | 0 | 0 | 9 | 9 | 9 | 7 | 4 | 3 | 36 | 71 | 34 |
| Bahamas | 222 | 38 | 0 | 0 | 0 | 0 | 0 | 64 | 0 | 1 | 9 | 1 | 107 |  | 4 |
| Barbados | 416 | 88 | 52 | 43 | 42 | 27 | 28 | 22 | 4 | 4 | 3 | 5 | 86 | 7 |  |
| Belize | 890 | 86 | 45 | 46 | 49 | 51 | 0 | 22 | 8 | 44 | 56 | 51 | 358 | 68 | 39 |
| Bolivia | 2,605 | 206 | 156 | 142 | 132 | 266 | 388 | 135 | 150 | 71 | 131 | 520 | 201 | 101 | 47 |
| Brazil | 86 | 3 | 0 | 8 | 16 | 0 | 6 | 8 | 3 | 12 | 0 | 9 | 8 | 9 | 78 |
| Chile | 444 | 8 | 49 | 48 | 105 | 0 | 4 | 68 | 35 | 29 | 32 | 20 | 7 | 35 | 14 |
| Colombia | 2,154 | 186 | 183 | 178 | 212 | 221 | 150 | 146 | 43 | 60 | 69 | 116 | 363 | 222 | 219 |
| Costa Rica | 3,069 | 207 | 121 | 99 | 117 | 110 | 296 | 514 | 85 | 315 | 242 | 211 | 386 | 362 | 393 |
| Cuba | 63 | 0 | 0 | 0 | 0 | 0 | 4 | 0 | 0 | 4 | 0 | 3 | 0 | 52 | 6 |
| Dominica | 533 | 33 | 19 | 0 | 20 | 41 | 0 | 32 | 15 | 7 | 0 | 39 | 278 | 46 | 44 |
| Dominican Republic | 2,619 | 131 | 200 | 413 | 28 | 50 | 309 | 745 | 218 | 193 | 35 | 95 | 78 | 119 | 122 |
| Ecuador | 2,605 | 199 | 158 | 213 | 229 | 235 | 204 | 256 | 43 | 82 | 109 | 74 | 533 | 266 | 106 |
| El Savador | 3,176 | 145 | 160 | 175 | 170 | 174 | 236 | 450 | 452 | 48 | 107 | 224 | 625 | 206 | 305 |
| Grenada | 431 | 47 | 26 | 21 | 52 | 31 | 28 | 28 | 0 | 32 | 24 | 147 | 119 | 19 | 31 |
| Guatemala | 5,226 | 142 | 232 | 310 | 581 | 397 | 243 | 955 | 443 | 95 | 171 | 211 | 252 | 1,188 | 893 |
| Guyana | 967 | 135 | 72 | 188 | 99 | 102 | 98 | 82 | 0 | 6 | 5 | 25 | 94 | 55 | 7 |
| Haiti | 984 | 4 | 0 | 0 | 219 | 104 | 96 | 182 | 0 | 36 | 1 | 39 | 224 | 76 | 94 |
| Honduras | 2,960 | 107 | 104 | 175 | 97 | 119 | 110 | 733 | 578 | 250 | 68 | 88 | 103 | 425 | 62 |
| Jamaica | 1,339 | 178 | 97 | 211 | 68 | 120 | 112 | 127 | 59 | 135 | 78 | 34 | 63 | 50 | 29 |
| Mexico | 362 | 38 | 64 | 12 | 4 | 0 | 8 | 94 | 28 | 57 | 4 | 2 | 6 | 41 | 1,021 |
| Nicaragua | 3,268 | 438 | 102 | 95 | 137 | 112 | 69 | 733 | 573 | 45 | 221 | 42 | 561 | 134 | 313 |
| Panama | 2,316 | 192 | 142 | 94 | 127 | 135 | 187 | 469 | 4 | 41 | 127 | 30 | 502 | 261 | 321 |
| Paraguay | 5,774 | 215 | 223 | 245 | 363 | 546 | 484 | 931 | 613 | 268 | 270 | 414 | 555 | 642 | 1,029 |
| Peru | 9,953 | 236 | 215 | 526 | 306 | 389 | 639 | 600 | 971 | 481 | 1,802 | 746 | 959 | 2,077 | 2,957 |
| St.Kitts-Nevis | 489 | 38 | 27 | 27 | 30 | 54 | 25 | 28 | 28 | 7 | 45 | 7 | 168 |  | 50 |
| St.Lucia | 440 | 37 | 29 | 22 | 29 | 31 | 25 | 36 | 0 | 24 | 4 | 0 | 193 | 5 | 46 |
| St.Vincent | 408 | 36 | 28 | 18 | 30 | 27 | 22 | 21 | 18 | 0 | 2 | 0 | 151 | 51 | 11 |
| Suriname | 719 | 99 | 106 | 99 | 104 | 103 | 64 | 50 | 4 | 20 | 50 | 1 | 3 | 11 | 26 |
| Trinidad and Tobaco | 1,094 | 108 | 115 | 89 | 135 | 103 | 173 | 86 | 58 | 2 | 6 | 15 | 160 | 39 | 10 |
| Uruguay | 1,170 | 80 | 98 | 0 | 14 | 6 | 159 | 156 | 216 | 74 | 50 | 20 | 222 | 71 | 258 |
| Venezuela | 342 | 13 | 17 | 17 | 4 | 0 | 10 | 0 | 0 | 50 | 62 | 35 | 123 | 7 | 14 |

따라서 협력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원조규모 증대 및 국가별 특성에 맞는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하여야 하며, 프로젝트사업과 봉사단, 연수생 등 인력사업이 연계되는 종합 원조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분야별 실적

분야별로는 공공행정분야 51.8%(4,946백만원), 교육훈련 22.7%(2170백만원), 보건분야 12.9%(1,232백만원)순으로 나타나 IT, 보건, 교육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공공행정분야에 대한 지원 중 IT분야에 대한 원조가 증가했다.

〈표6 _ 분야별 對중남미 무상원조 실적〉

(단위: 백만원/천불)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계 | 4,296/3,800 | 4,000/3,097 | 9,545/7,630 | 8,016/6,725 | 9,873/8,625 |
| 사회하부구조 | 3,776/3,341 | 2,867/2,221 | 8,432/6,738 | 6,461/5,422 | 7,132/6,230 |
| 교육훈련 | 671/593 | 993/770 | 2,170/1,732 | 2,024/1,698 | 1,606/1,403 |
| 보건 | 2,003/1,772 | 1,041/806 | 1,232/986 | 2,657/2,230 | 3,681/3,215 |
| 인구 | 16/15 | 13/10 | 12/9 | 12/10 | 23/20 |
| 공공행정 | 1,042/922 | 742/575 | 4.946/3,953 | 1,577/1,323 | 846/740 |
| 식수공급 | | 15/11 | 5/4 | 35/30 | 678/592 |
| 기타 | 44/39 | 63/49 | 67/54 | 156/131 | 298/260 |
| 경제하부구조 | 32/29 | 168/130 | 231/185 | 753/631 | 1,019/891 |
| 운송 | | 15/11 | 17/13 | | 60/53 |
| 통신 | 29/26 | 89/69 | 159/128 | 647/543 | 891/778 |
| 금융/재정서비스 | 3/3 | | 5/4 | 16/13 | |
| 비즈니스/기타 | | | | | 23/20 |
| 에너지 | | 64/50 | 50/40 | 90/75 | 45/40 |
| 생산부문 | 388/342 | 643/498 | 573/459 | 602/502 | 1,288/1,125 |
| 농림수산 | 160/141 | 332/257 | 216/173 | 266/224 | 501/438 |
| 공업 · 광업 | 191/169 | 177/137 | 212/169 | 200/167 | 603/527 |
| 무역관광 | 37/32 | 134/104 | 145/117 | 136/114 | 184/160 |
| 다부문 | 100/88 | 322/248 | 309/248 | 200/167 | 434/379 |
| 환경보호 | 57/50 | 34/26 | 30/24 | 35/29 | 58/50 |
| 여성개발 | | | | 17/14 | 15/13 |
| 긴급 및 재난구호 | 22/20 | 233/180 | 88/71 | 84/71 | 289/253 |
| 기타 다부문 | | 29/22 | | 12/10 | 72/63 |
| 기타 | 21/18 | 26/20 | 191/153 | 52/43 | |
| NGO | 21/18 | 26/20 | 31/25 | 52/43 | |
| 비배분/비특정 | | | 160/128 | | |

※ 자료: KOICA 대외무상원조 실적 통계

## Ⅴ. 한국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평가

### 1. 총 괄

#### 1) Partnership이 중시된 중 · 장기 원조전략 부재

중남미지역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무상원조는 공여국과 수원국간 Partnership이 중시된 중 · 장기 원조전략 수립이 결여된 채 외교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지원되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우리의 원조규모 및 원조 역사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천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나, 향후의 對개도국(중남미) 원조는 수원국의 개발전략을 중시하고 이들의 국가개발 전략과 일치시키는 원조일치(Alignment), 우리의 원조제공시 수원국 스스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주인의식 강화(Ownership) 그리고 개발전략 수립 및 이행, 평가에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 참여하는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을 강화시킬 수 있는 중 · 장기 원조전략 하에서 對중남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수원국의 중 · 장기 경제개발 계획 및 예산 확보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여국의 일방적인 협력사업 추진시 사후관리 및 예산배정 등의 문제 발생으로 원조효과 반감 가능

#### 2) 對중남미 협력사업 규모 저조

앞장의 여러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對중남미지역 무상원조는 규모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미한 실정인데, 이는 전체 원조규모가 선진국의 원조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근본적으로 중남미 사업비 자체가 선진국에 비해 적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의 對중남미 원조비율을 비교하면 우리의 중남미 원조가 적은 것은 단순히 한국의 총 ODA 예산 규모가 작기 때문만이 아니라 중남미지역에 대한 원조 비율이 작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한국이 스페인 등 유럽국가와 미국 등에 비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리적 여건(원거리)과 상이한 언어(서반아어) 및 문화적 차이(Iberoamerica 문화권)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데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와 지리적 · 문화적 여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약17.1%)와 비교할 때 우리의 對중남미 지역 무상원조 규모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 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규모가 작은 것은 단순히 ODA 예산의 규모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전략이나 지역연구 및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원조 선진국과 일본 및 중국의 경우 중남미지역에 대한 성장 잠재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예상하고 장기적인 전략하에 실질적인 협력과 교류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외교적 · 경제적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한편, 각종 천연자원을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는 중남미지역과의 관계강화는 원자재 수입선의 안정적 확보 및 상품시장 확보 등 우

〈표7_일본 JICA(기술협력)의 지역별 원조 비율〉

(단위 : 천불)

| 구 분 |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중남미 | 중동 | 아프리카 | 유럽 | 미분류 | 국제기구 |
|---|---|---|---|---|---|---|---|---|
| 2002년 | 45.7%(5,383) | 3.1%(362) | 17.3%(2,042) | 8.6%(1,018) | 14.1%(1,663) | 2.4%(278) | 8.5%(1,002) | 0.3%(40) |
| 2003년 | 43.0%(5,256) | 3.3%(397) | 17.1%(2,087) | 9.9%(1,206) | 14.0%(1,704) | 2.7%(327) | 9.9%(1,206) | 0.2%(30) |

※ 자료 : JICA 「Annual Report」(2004)

리의 식량 및 자원 안보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여 對중남미 협력사업 규모 확대 및 중남미 각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WTO 및 FTA 체제 하에서 세계 각 지역이 경제블록화 경향
- 세계 면적의 15.2%, 전 세계 인구의 9%인 468백만명 보유
- 총 GDP 2조 달러의 거대 상품시장 및 대미 수출 우회기지

〈표8_미국의 對중남미 원조실적〉

(단위: 백만불)

| 구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
| 중남미지역 프로그램 지원 | 66.25 | 73.37 | 102.52 | 136.92 |
| 멕시코 | 43.00 | 50.87 | 91.72 | 67.57 |
| 카리브연안국 | 168.95 | 201.27 | 159.66 | 231.38 |
| 중미지역 | 214.48 | 319.76 | 321.29 | 374.04 |
| 남미지역 | 1,729.30 | 765.15 | 1,111.87 | 1,256.17 |
| 합계 | 2,221.98 | 1,410.42 | 1,787.07 | 2,066.08 |

※ 자료: USAID 「LAC Databook」(2004)

## 2. 구체적 평가

### 1) 공여국 및 수원국 상호간 유익한 원조분야 선정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무상원조는 직업훈련 등의 교육분야, 의료보건분야, 식수개발 등의 환경위생 분야 및 IT분야 등 나름대로 우리에게 비교 우위가 있는 인적자원개발분야(HRD)와 인간기본욕구(BHN) 충족을 위한 분야로 원조분야를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몇 개 특정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원조규모가 적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다분야에 소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원조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고, 특정분야 개발이 시급함에도 자국 경제여건상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수원국 입장에서도 매우 유익하여 자연스럽게 공여국과 수원국간 원조일치(Alignment)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2) 사업기간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는 단년도 사업인 연수생초청과 물자지원사업 외 프로젝트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설립, 직업훈련센타건립, 의료센타건립 및 IT시설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는 프로젝트사업 경우 사업기간을 2~3년으로 설정, 사업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3년의 사업기간에는 사업타당성조사, 실시협의 및 국가간 협정 체결 등의 행정기간도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조사와 수원국의 개발전략 및 예산확보 계획 등이 심도있게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원

국의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예산 회계기간의 차이로 인해 수원국측 부담 예산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는 바, 사업기간 설정시 수원국의 예산 회계연도 및 행정 소요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 3) 국가별 협력사업의 특화분야 선정 및 추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對중남미지역 원조규모는 선진국의 원조규모에 비해 적고, 우리의 원조 중 중남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아 · 태지역의 1/4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은 규모의 원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국가별 경제규모, 사업추진 여건, 협력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국별 특성에 맞는 연수생초청, 프로젝트사업, 물자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분야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바,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다국가를 지원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적은 규모의 예산지원으로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성과 또한 크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 페루 : 1991~2004년 동안 5개의 의료센터를 집중 지원하였고, 1개 의료센터 건립이 추진중에 있음. 또한 의료단 파견, 의료분야 봉사단 파견 등 인력협력사업도 의료분야에 집중 지원
- 과테말라 : 3개소의 아동복지원을 지원하였고 직업훈련소건립 등 HRD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컴퓨터 등 교육분야 봉사단원 파견 추진
- 파라과이 : 농업개발과 농촌식수공급 시설을 집중 지원하였고 농업분야 봉사단 파견 추진

### 4) 원조 수용태세

중남미지역은 대체적으로 협력사업 추진의 기본요소인 수원국의 개발의지, 지역주민의 참여정신 등 개발협력사업의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구비되어 있으며, 도로 · 상하수도 · 전기 등 하드웨어적 요소인 사회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어 아시아나 아프리카지역에 비해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고 사업추진 효과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의료분야의 경우, 선진 의료행정 체계가 이미 구축되어 있으며 원조수용시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개발 계획에 의거, 수원 계획 수립으로 기본 인프라(사업부지 및 의료인력 등) 사전 확보
- IT분야의 경우, 중남미권에서 IT인프라가 가장 열악한 쿠바조차도 동아시아 저소득권 국가의 IT인프라 기반시설 보다는 상대적으로 우세
-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는 중남미지역 현지 상 · 하층부(정부 – 지역주민)의 사업당사자들이 국가 및 지방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유

## Ⅵ. 한국의 對중남미 무상원조 유의사항 및 향후 추진 방안

### 1. 한국의 對개도국 무상원조 추진 기본방향

#### 1) 기본방향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무상원조는 외교적 · 정치적 고려, 인도주의 입장, 세계평화 기여 등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HRD)분야 중점 지원
  –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우리의 개발경험을 개도국과 공유

□ 개도국의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 강화
  – 개도국의 빈곤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도국의 정보접근 기회 확대를 위한 IT분야 협력사업 확대

□ 세계평화와 범지구적 과제에 대한 지원 강화
  – 빈곤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테러리즘, 난민문제 등 한 지역,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개도국 빈곤해소, 저개발문제 해소 등 전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

### 2) 사업목표

우리나라는 상기와 같은 무상원조 기본방향 아래서 사업의 구체적 실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개도국의 여건에 적합하고 우리의 경제개발 경험 등 비교 우위에 입각한 협력사업의 확대
  – 연수생초청, 해외봉사단파견 등 인력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인적자원개발(HRD) 및 빈곤완화를 중점 지원
  – 개도국의 지식 ·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 지원을 위해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 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등의 정부간 약속사업의 충실한 이행
  – 긴밀한 국제적 연계 하에 보건 · 환경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지원
  – 난민지원, 홍수, 지진 등 긴급재난구호 지원 강화
  – 최빈개도국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노력 지속 추진

□ 아프카니스탄 · 이라크 난민지원 및 재건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 난민지원 및 재건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

## 2. 對중남미지역 무상원조 추진 기본방향

중남미지역에 대한 무상원조는 기본적으로 KOICA의 對개도국 협력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목표에 의거 시행하되, 지역별 · 국별 지원 방향을 설정, 사업추진 방향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원조사업의 성과제고 및 균형적 추진을 노력한다.

또한 지역별 · 국별 예산의 최적 배분을 통한 협력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 주요 협력국가 및 지역에 대한 긴밀한 협력기조를 유지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 중남미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빈곤해소 지원

□ 인적자원개발(HRD) 지원을 통한 우리의 개발경험 전수 및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지원

□ 교육, 의료보건, 식수 등 인간기본욕구충족(BHN 분야)을 위한 지원 강화

□ 절대빈곤 퇴치 및 초등교육 강화, 사회하부기반시설 건설 및 환경 · 여성문제 등 새천년개발목표(MDGs) 및 범세계적 문제 해결 지원(Global issues)

□ 중남미 국가의 지식 · 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지원을 위하여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

ㅁ 긴급 재난구호 등에 대한 지원

## 3. 對중남미지역 무상원조 추진시 유의사항 및 발전과제

우리나라의 중남미지역 협력사업은 문화적 · 언어적 차이 및 국민 의식구조의 상이함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시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며 사업지연 및 사업 선정 실패 등 원조 효과를 제대로 기대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바, 우리의 對중남미 원조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공여국간 상호보완성 유지 및 원조일치 (Alignment)

유럽 및 미주지역 국가들은 중남미지역 국가들과의 문화적 · 역사적 · 언어적인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으로 對중남미 원조규모도 크며, 원조분야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선진국가에 비해 원조규모가 적은 우리나라로서는 협력사업 분야 선정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으며 선진국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외원조가 수원국의 경제개발 계획 및 개발우선 분야에 대한 공여국의 개발자금 및 기술지원 성격임을 고려할 때, 공여국 중심의 정치적 · 외교적 이해관계를 벗어나 공익성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원조전략을 일치시키고 수원국의 개발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 2) 수원국의 적극적인 주인의식(Ownership) 강화

대외원조의 성공여부는 수원국 및 수원국 정부관료들의 주인의식 및 책임감있는 사업 추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원국 측에서 개발전략 및 실행 프로그램 수립시 적극적인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의 對중남미 협력사업 분야 및 대상기관 선정시에도 우리의 입장만을 강요하기 보다는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 및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3) 협력사업 예산운영의 자율성 확대

중남미 국가는 물론 많은 수원국의 예산 회계연도가 우리와 달라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수원국측의 예산확보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수원국측의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공여국의 예산 회계연도 준수와 같은 행정절차 적용에 집착할 경우, 공여국의 예산 회계연도 및 사업기간 준수라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공여국이 수원국보다 사업이행을 조급해하는 기형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당초 계획만큼 사업효과를 제고치 못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조사업의 경우, 형식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충분히 부여해야 할 것이다.

### 4) 수원국과의 Partnership 구축

수원국 정부 관계자와의 Partnership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은 공여국 및 수원국 모두의 공동 발전

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수원국과 공여국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 및 동반자적 협조관계 구축을 통해 협력사업이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이익을 추구한다는 인식전환과 이를 위한 Partnership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

#### 5) 지역연구 및 사전조사 강화

2~3년의 짧은 사업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조사의 실효성 및 사업추진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시 단순히 사업실시를 위한 형식적 조사보다는 실질적인 타당성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체계성 및 실효성 있는 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연구도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향후 중남미지역 무상원조 추진 방안

이상과 같이 중남미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력사업 실적 및 유의사항 등을 살펴보았는 바, 이를 토대로 향후 중남미지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무상원조 규모 확대

2003년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현황을 살펴보면, 양자간 원조 중 무상원조의 비율이 59%(2004년도 59.3%로 추정)에 불과하여 선진국의 무상원조 수준(96%)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무상원조 중 중남미지역에 대한 점유율 또한 약 4.85% 수준에 불과하다.

- 2004년도 1국당 평균 지원액은 110만불이나 중남미 국가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26만불에 불과
- 중남미 국가 중 100만불 이상 지원 국가는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3국뿐이며 중남미 33개 지원국 중 10만불 이상 지원 국가는 12국에 불과
- 중남미지역 원조 규모는 아시아지역의 1/7 수준

향후, 정부도 2009년까지 ODA를 GNI 대비 0.1%까지 증대시킬 방침인 바, ODA 규모 확대와 더불어 ODA 예산 중 무상원조 비율의 증대가 필요하며 對중남미 무상원조 규모 역시 우리나라와 중남미간 무역규모에 걸맞는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 2004년 우리나라의 총 무역흑자액(293억불) 중 대중남미지역 무역흑자 비율은 16.7%(49억불) 점유

#### 2) 지역연구 강화 및 국별 원조전략 수립의 체계화

협력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하여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역정보 확보,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원조전략 수립 등이 중요한 바, 중남미지역의 국별 특성, 개발우선분야, 인적자원 보유 현황 및 사회 인프라 등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역 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협력사업에 대한 우리의 비교우위분야 및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등 체계적인 원조전략 수립 및 집중 지원을 통한 원조효과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남미지역에 대한 지역 및 국별연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 및 국별 중점지원분야를 선정하여 국별로 집중 지원할 수 있는 기

반을 구축해야 하며, 선진 원조공여국과 對중남미 원조에 대한 효과적인 상호 역할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보완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일본의 경우, 농업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위해 중남미 각국의 농업연구소 건립 및 농업분야 공동 연구 추진
- 우리나라의 경우, 개도국 입장에서 원조를 받은 경험과 경제개발을 이룬 경험을 보유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자적 입장인 바, 이러한 경험을 이용하여 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전략을 능동적으로 수립하여 우리의 개발경험을 전수하고 우리에게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추진할 경우 사업효과 배가
- 의료보건, 교육, 직업훈련, IT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 추진

### 3)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 추진

2000년 9월 전 세계 지도자들은 UN총회에서 새천년선언을 통해(Millennium Declaration) 국제사회가 추구해야 할 새천년개발목표(MDGs/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제시하는 한편, 2004년 12월 남아시아 지진해일 사태 이후에는 2005년 2월 '파리 선언문'을 통해 개발원조 조화의 필요성과 공여국과 수원국의 개발원조 관리방식의 대폭적인 변화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의 對개도국 원조는 공여국의 對개도국 원조실적뿐 아니라 공여국간 동료평가(Peer Review)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의 對개도국 원조 및 對중남미 원조 역시 원조규모 확대에 못지 않게 국제사회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 추진 방향 설정도 중요하다.

- '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초등교육의 의무화 달성,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 고양, 아동사망률 감소, 모자보건 향상, HIV/AIDS,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퇴치,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장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 구축'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과
- 수원국 개발역량 및 주의의식 강화(Ownership), 원조일치(Alignment), 원조조화(Harmonization), 개발원조 결과 관리(Managing for Results) 및 상호책임성(Mutual Accountability) 강화 등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이행목표 달성

### 4) 협력사업간 연계강화 및 한국형 협력사업 모델 정립

협력사업 추진시 개별사업 분야별 분산 실시보다는 협력사업간 연계를 통한 사업추진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하드웨어적 요소(프로젝트, 물자지원, 개발조사 등의 개발협력사업)와 소프트웨어적 요소(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등 인력협력사업)의 적절한 연계를 통한 사업효과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

연수생초청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와 연계된 연수과정을 강화하여 프로젝트사업과 연수생초청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봉사단파견사업의 경우, 프로젝트사업의 사후관리 및 프로젝트사업 추진분야의 수원국측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봉사분야를 선정, 봉사단파견사업과 프로젝트 사업의 상호 유기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국형 협력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시설지원, 기자재 지원 등 하드웨어적 요소에 연수생초청, 전문가 및 봉사단파견 등을 통한 이론 및 기술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의 연계 실시

※ 페루 협력사업의 경우, 보건의료분야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의료단, 의료봉사단 파견을 연계하여 사업효과 제고

- 보건의료프로젝트의 경우, 의료진으로 구성된 특별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의료진을 초청,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교육함으로써 동 프로젝트 사업의 실시효과를 배가시키고 동시에 향후 수원국 현지에서의 의료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 5) 지역전문가 양성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능력 배양

중남미지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지리적 불리함(원거리) 및 상이한 언어(서반아어) 등으로 친숙하게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이고, 학계에서도 중남미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다 보니 협력사업 및 일반분야에 대한 중남미 지역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고, 중남미 국가별 특성과 발전단계, 개발전략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국별 원조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원조를 실시할 경우,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역연구, 언어 등에 능통한 협력사업 자문인력그룹을 구성하여 협력사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토록 하며 중남미지역 해외사무소 파견인원 확대를 통해 협력단내 중남미지역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경우, 단기적 사업효과 제고는 물론 장기적 업무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서반아어의 언어적 특수성, 지리적 영향, 문화적 차이로 인한 지역전문가 부족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 분야별 지역전문가 부족으로 전문가 파견활동의 효율성 저하(필요시 현지 전문가 활용)
- 중남미지역의 해외봉사단 파견국 및 KOICA사무소 확대를 통한 체계적, 전략적인 지역전문가 양성 필요

### 6) 해외조직망 및 업무영역 확대

對개도국 협력사업은 국내에서 추진하는 종합 행정업무는 물론 사업 현장에서 직접 추진하는 현장 업무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무소의 업무영역을 사업에 대한 단순 집행에서 정책개발 기능으로 확대하고 업무재량권을 강화하여 정보수집 및 집행, 프로젝트 사업의 감독 및 평가 등 해외사무소에서 현장감이 있는 원조 정책 수립 및 집행을 도모한다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수원국과의 실질적인 정책대화를 통해 수원국 경제개발을 위한 동반자적 의식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협력사업 규모 및 해외봉사단 파견규모가 확대되는 현 추세를 고려할 때 해외조직망 및 해외사무소 근무인원 확대는 협력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해외사무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인력 및 행정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협력사업 규모상 해외조직망을 단시간 내 대폭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기존에 운영중인 해외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역할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중남미지역은 남미지역의 페루 사무소와 중미지역의 과테말라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는 바, 이들 사무소가 현지의 치안상황, 지리적 · 정치적 중심국(중남미지역 각각의 지리적 · 정치적 중심) 및 협력사업 추진 여건에 맞게 적절히 선정되었는지 재검토한 후, 이들 사무소를 중남미 거점사무소로 선정, 주변국에 대한 협력사업 추진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 7) 사업추진에 대한 평가 및 Feed-back 기능 강화

협력사업의 효과는 사업추진 당해연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일반 수치로 계량화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성과 측정 및 효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며 전문화된 사업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효과 분석, 개선방안 연구 등 Feed-back 기능을 강화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비계량적 성과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력사업 추진은 수원국의 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빈곤완화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동료 공여국간 평가(Peer Review)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는 바, 협력사업 추진시 최근 국제사회의 이슈인 천년개발목표(MDGs)에 맞는 원조방향 설정과 추진이 필요하며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방법도 DAC 평가기준에 맞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DAC의 사업평가 5항목**

타당성(Relenence), 목표달성도(Effectiveness), 파급효과(Impact), 효율성(Efficiency), 자립발전성(Sustainability)

### 8) ODA 실시 조직체계의 일원화 추진

우리나라의 ODA 체계는 유 · 무상사업간 원조 실시체계의 이원화는 물론 무상원조사업 자체도 여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하고 있어 종합적인 원조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다원화된 원조 실시체계를 일원화하여 ODA 실시 체계의 다원화로 인한 원조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 이는 중남미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對개도국 원조사업에 모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KOICA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사업 실시 현황의 예〉

| 기 관 명 | 무상원조 추진 내용 |
|---|---|
| 정보통신부 | 인터넷 봉사단, 연수생 초청(연간 1~2백명) |
|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자 교류(연간 약 50여명) |
| 교육부 | APEC 청년인터넷봉사단, 외국인 유학생 초청(연간 60명) |
| 한국개발연구원 | 국제연찬사업(연간 50~60명) |

## 참고자료

#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對중남미 원조동향

### 1. 주요 선진국의 원조동향

주요 선진국의 對중남미 원조사업은 빈곤추방, 환경보호, 마약퇴치, 여성개발, 국가현대화 지원, 교육분야 지원, 지방개발 등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별 협력사업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음.

1) 미국(USAID)

□ 정책목표 : 민주주의, 안보, 시장기반 개발의 역량 강화

(The future of this hemisphere depends on the strength of three commitments : democracy, security and market-based development.)

※ 2002년 1월 George W. Bush 대통령 연설

□ 원조금액 및 중남미 조직

- 연간 850백만불 이상을 동 지역에 지원하고 있으며 USAID는 삶의 질 개선과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를 강화하는데 주력
  - USAID 연간예산(2003 회계연도) : 85억불
- 16개국에 사무소가 있으며 본부 내 지역국(Bureau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 따로 있음.
  - 해외사무소 70개소
- 지원 대상국
  -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쿠아돌, 엘살바돌, 과테말라,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자메이카, 페루,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쿠바도 지원대상임)

□ 중남미 원조 분야

- 중점 지원 분야
  - 교육, 문화 및 경쟁력 제고
  - 빈곤감소 및 무역증대
  - 보건의료의 질과 서비스 향상
  - 남반구 자원의 보존
  - 재해경감과 복구
  - 마약대처와 대안적 개발
  - HIV/AIDS의 예방 및 교육
- 경제개발 지원
  - 소영농의 생산 다각화 및 생산량 증대 지원

– 도농지역의 중소규모 자영업 지원
– 지역적, 세계적 경쟁력 강화 지원

• 교육지원
–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원
– 중등교육 강화
– 기술훈련에 중점을 둔 직업교육
– 교사 및 가족들을 위한 훈련과 교육자원 제공

• 민주적 절차와 제도 지원
– 사법, 지방정부, 선거시스템 등을 포함

2) 캐나다(CIDA)

□ 정책목표
• 기초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의 개선과 빈곤층의 생산력 및 소득 창출 역량 강화(BHN: 인간기본욕구)
• 여성들의 참여와 역량 강화
• 사회기반시설 개선 지원
• 인권, 민주주의, Good Governance 지원
• 고용창출을 위한 민간부문의 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
• 환경관리 능력 강화 및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지원
• 공평한 성장을 위한 경제개혁 지원
• 지역통합 지원

□ 우선순위
• 인권, 민주정부, 마약퇴치 및 환경보전과 같은 이슈들에 관하여 미주기구(OAS)의 리더십 지원
• 2005년까지 미주지역에서의 FTA 협상
• 상호호혜적인 무역관계 발전
• 미주지역 내 이웃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CIDA 미주국의 지역적 프로그램
• 카리브(아이티 및 쿠바 포함)/Caribbean
• 중미/Central America
• 안데스지역 국가/Andean Countries
• 남미(Southern Cone), 브라질, 콜롬비아

□ CIDA의 對미주지역 원조
• 연간 약 300백만불 이상

## 참고자료

– CIDA의 對미주지역 원조는 주로 카리브 지역에 중점지원
(1990년도 기준, 對미주지역 원조총액의 약 55%)
–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외교정책의 주요 관심분야가 확대되면서 카리브 지역에 대한 원조 역시 감소하여 CIDA 對미주지역 원조는 원조총액의 40%를 밑도는 수준으로 감소됨
– 캐나다가 미주 전 지역에서의 신흥강국으로 부상하고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어짐에 따라, 이전의 카리브 연안에 집중되었던 자원이 중미 및 남미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프로그램의 집행에 있어 카리브지역에 대한 원조비중이 높음
– 최대 수원국은 아이티(연간 40백만불)이며 페루 · 온두라스 · 볼리비아 · 니카라과 · 가이아나(연간 12~20백만불), 과테말라 · 자메이카 · 카리브동부지역 · 브라질 · 콜롬비아 · 엘살바돌(8~12백만불), 에쿠아돌 · 코스타리카 · 쿠바(5~8백만불) 등임

□ 협력사업 추진 형태
• 경제지원(물자지원 형태로 기자재, 식료품 등 지원)
• 긴급재난구호, 개발조사 및 연수생초청
• 전문가파견 및 NGO지원, 지역사회개발 지원

3) 일본(JICA)
□ 원조 방향
가. Central America & the Caribbean
JICA는 중미 및 카리브 연안국들에 대하여 인적자원 역량구축과 국가 제도 구축 분야에서 수원국들의 자조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슈들을 우선 고려하고 있음.
• 남남협력을 활용하는 지역협력 증진
– 동 지역에는 비교적 개발된 국가들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가들이 언어라는 공통 요소로 묶여 있음.
– 동 지역 내 국가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원조의 효율성과 집중성 등을 고려하여 동 지역 내 남남협력을 활용하는 원조 실시
– 지역 내 공통 이슈에 대하여 몇 개 국가에 대하여 공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재해방지, 전염병 예방, 환경 및 수자원 보호 프로젝트 등
• 자연재해 복구 지원(허리케인 등)
• 환경보호
• 내전복구 지원
– 내전으로 파괴된 사회적, 경제적 기반시설 복구 지원
– 상하수 · 보건의료 · 기초교육 · 농업개발 · 도로 및 교량 건설 · 민주화 · 공공안전 부문 개선 등

나. South America
JICA는 남미 국가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을 통해 원조 실시

•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 비교적 소득과 개발수준이 높은 국가로 열대우림의 파괴, 주요 도시에서의 환경오염 등에 대한 환경보존 등을 동 국가들에 대한 원조의 주요 요소로 고려
  – 상기 3개국과는 Partnership Program이라는 협정(Agreement) 을 체결하며 지역 내 남남협력 촉진을 위해 적극 지원
• 저개발국
  –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과 같이 개발수준이 낮은 국가들에 대하여는 보건의료 개선 · 농업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개발 분야(Infrastructure)를 우선 지원

□ 기타

• 남미지역에는 일본 이민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며 JICA는 이들 일본 이민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사회 인프라 개선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일본에서 실시하는 훈련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JICA는 이들 교포들을 남남협력에 있어서 전문가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모색하고 있으며
• 중남미지역 공히 지역 내 협력기구(SICA, MERCOSUR 등)를 통한 지원에도 적극적임.

□ ODA 총액 및 JICA 기술협력 실적

(단위: 백만불)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ODA total | 13,419 | 9,704 | 9,359 | 8,674 |
| Japan's Technical Cooperation | 3,705 | 2,811 | 2,754 | 2,828 |
| JICA's Technical Cooperation | 1,460 | 1,370 | 1,268 | 1,299 |
| Other Japanese Assistance | 9,714 | 6,893 | 6,605 | 5,846 |

자료: JICA 「Annual Report」(2004)

**〈주요 공여국들의 중남미지역 원조 실적〉**

(단위: 백만불)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Arab Countries | 21 | 17 | 1 | . |
| Australia | 1 | 0 | 0 | 1 |
| Austria | 18 | 80 | 15 | 18 |
| Belgium | 43 | 39 | 56 | 60 |
| Canada | 90 | 105 | 119 | 143 |
| Czech Republic | 1 | 1 | 1 | 2 |
| Denmark | 69 | 67 | 83 | 72 |
| Finland | 10 | 11 | 14 | 18 |
| France | 98 | 100 | 156 | 178 |

## 참고자료

| 구 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Germany | 309 | 309 | 324 | 435 |
| Ireland | 6 | 6 | 9 | 11 |
| Italy | -9 | -18 | 17 | 41 |
| Japan | 785 | 736 | 590 | 459 |
| Korea, Rep. | 12 | 14 | 9 | 11 |
| Luxembourg | 17 | 14 | 16 | 22 |
| Netherlands | 307 | 300 | 307 | 270 |
| New Zealand | 1 | 2 | 2 | 2 |
| Norway | 50 | 74 | 47 | 63 |
| Poland | 3 | 0 | 0 | 0 |
| Portugal | 1 | 2 | 2 | 0 |
| Spain | 242 | 650 | 367 | 450 |
| Sweden | 135 | 112 | 103 | 113 |
| Switzerland | 53 | 51 | 64 | 88 |
| United Kingdom | 196 | 155 | 252 | 118 |
| United States | 609 | 1,099 | 1,069 | 1,626 |
| Non-DAC Bilateral Donors | 51 | 45 | 52 | 32 |
| Other Bilateral Donors | 13 | 12 | 41 | 19 |
| **Bilateral Donors** | **3,133** | **3,986** | **3,716** | **4,253** |

자료 : USAID, 「LAC Databook」(2004)

### 2. 국제기구의 원조동향

□ 중점 지원분야

- 중남미지역의 빈곤추방 및 민주화지원, 환경보호 등

□ 국제기구의 주요활동

- 국제개발은행(IDB) :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국가의 경제 · 사회개발지원을 목표로 하며 빈곤추방, 국가 현대화, 환경보호등에 지원
- 세계은행 : 주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생산증대 및 국가개발 지원을 목표로 하며 사회 · 경제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
- 유럽연합 : 유럽연합 소속국가를 통한 원조를 하며 주로 개발 협력, 산업 및 경제협력, 인적자원 개발 등에 지원
- 세계환경기금 : 생태계연구, 기후변화, 식수, 오존파괴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지원

〈국제기구 등의 중남미지역 원조 실적〉

(단위:백만불)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
| Arab Agencies | 2 | 3 | 0 | 1 |
| Caribbean Development | 15 | 29 | 60 | 19 |
| European Commission | 314 | 517 | 297 | 435 |
|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12 | 24 | 39 | 26 |
| IDB Special Fund | 138 | 240 | 140 | 258 |
| IFAD | 14 | 21 | 19 | 15 |
| Intern'l Dev. Associaton | 174 | 274 | 248 | 307 |
| Montreal Protocol | 4 | 4 | 2 | 3 |
| Nordic Development Fund | 9 | 5 | 6 | 12 |
| SAF+ESAF(IMF) | 7 | -18 | -45 | -25 |
| UNDP | 18 | 14 | 11 | 17 |
| UNFPA | 13 | 21 | 45 | 29 |
| UNHCR | 10 | 12 | 12 | 12 |
| UNICEF | 21 | 23 | 19 | 19 |
| UNTA | 39 | 35 | 36 | 39 |
| World Dood Programme | 37 | 29 | 20 | 22 |
| Other United Nations | 132 | 137 | 147 | 126 |
| **Multilateral Donors** | **959** | **1,370** | **1,056** | **1,315** |

자료:USAID, 「LAC Databook」(2004)

〈OECD/DAC 회원국들의 ODA 지원실적〉

(단위:백만불, %)

| 구분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2003 | |
|---|---|---|---|---|---|---|---|---|---|---|
| | ODA | ODA/GNI | ODA | ODA/GNI | ODA | ODA/GNI | ODA | ODA/GNI | ODA | ODA/GNI |
| DAC 총액 | 56,428 | 0.24 | 53,737 | 0.22 | 52,335 | 0.22 | 58,292 | 0.23 | 69,029 | 0.25 |
| 호주 | 982 | 0.26 | 987 | 0.27 | 873 | 0.25 | 989 | 0.26 | 1,219 | 0.25 |
| 오스트리아 | 527 | 0.26 | 423 | 0.23 | 533 | 0.29 | 520 | 0.26 | 505 | 0.25 |
| 벨기에 | 760 | 0.30 | 820 | 0.36 | 867 | 0.37 | 1,072 | 0.43 | 1,853 | 0.60 |
| 캐나다 | 1,706 | 0.28 | 1,744 | 0.25 | 1,533 | 0.22 | 2,004 | 0.28 | 2,031 | 0.24 |
| 덴마크 | 1,733 | 1.01 | 1,664 | 1.06 | 1,634 | 1.03 | 1,643 | 0.96 | 1,748 | 0.84 |
| 핀란드 | 416 | 0.33 | 371 | 0.31 | 389 | 0.32 | 462 | 0.35 | 558 | 0.35 |
| 프랑스 | 5,639 | 0.39 | 4,105 | 0.32 | 4,198 | 0.32 | 5,486 | 0.38 | 7,253 | 0.41 |
| 독일 | 5,515 | 0.26 | 5,030 | 0.27 | 4,990 | 0.27 | 5,324 | 0.27 | 6,784 | 0.28 |
| 그리스 | a194 | 0.15 | 226 | 0.20 | 202 | 0.17 | 276 | 0.21 | 362 | 0.21 |
| 아일랜드 | 245 | 0.31 | 235 | 0.30 | 287 | 0.33 | 398 | 0.40 | 504 | 0.39 |
| 이탈리아 | 1,806 | 0.15 | 1,376 | 0.13 | 1,627 | 0.15 | 2,332 | 0.20 | 2,433 | 0.17 |
| 일본 | 15,323 | 0.34 | 13,508 | 0.28 | 9,074 | 0.23 | 9,283 | 0.23 | 8,880 | 0.20 |
| 룩셈부르크 | 119 | 0.66 | 127 | 0.71 | 139 | 0.76 | 147 | 0.77 | 194 | 0.81 |
| 네덜란드 | 3,134 | 0.79 | 3,135 | 0.84 | 3,172 | 0.82 | 3,338 | 0.81 | 3,981 | 0.80 |

# 참고자료

| 구 분 | 1999 | | 2000 | | 2001 | | 2002 | | 2003 | |
|---|---|---|---|---|---|---|---|---|---|---|
| | ODA | ODA/GNI | ODA | ODA/GNI | ODA | ODA/GNI | ODA | ODA/GNI | ODA | ODA/GNI |
| 뉴질랜드 | 134 | 0.27 | 113 | 0.25 | 112 | 0.25 | 122 | 0.22 | 165 | 0.23 |
| 노르웨이 | 1,370 | 0.90 | 1,264 | 0.80 | 1,346 | 0.80 | 1,696 | 0.89 | 2,042 | 0.92 |
| 포르투갈 | 276 | 0.26 | 271 | 0.26 | 268 | 0.25 | 323 | 0.27 | 320 | 0.22 |
| 스페인 | 1,363 | 0.23 | 1,195 | 0.22 | 1,737 | 0.30 | 1,712 | 0.26 | 1,961 | 0.23 |
| 스웨덴 | 1,630 | 0.70 | 1,799 | 0.80 | 1,666 | 0.77 | 2,012 | 0.83 | 2,400 | 0.79 |
| 스위스 | 984 | 0.35 | 890 | 0.34 | 908 | 0.34 | 939 | 0.32 | 1,299 | 0.39 |
| 영국 | 3,426 | 0.24 | 4,501 | 0.32 | 4,579 | 0.32 | 4,924 | 0.31 | 6,282 | 0.34 |
| 미국 | 9,145 | 0.10 | 9,955 | 0.10 | 11,429 | 0.11 | 13,290 | 0.13 | 16,254 | 0.15 |
| 한국 | 318 | 0.079 | 212 | 0.047 | 265 | 0.063 | 279 | 0.06 | | 0.06 |

※ OECD/DAC 회원국은 22개국이며 우리나라는 현재 DAC 비회원국
– 자료 : OECD/DAC 2004년 통계

**〈중남미 국가의 연도별 수원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 형태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Argentina | 양자간 | 166.2 | 270.6 | 255.1 | 229.3 | 147.0 | 110.4 | 104.8 | 91.6 | 38.1 | 40.5 | 58.5 | 17 | 114.7 | 116.4 |
| | 다자간 | 3.7 | 4.5 | 9.5 | –2.5 | 1.0 | 33.2 | 39.6 | 30.3 | 51.0 | 64.1 | 25.3 | 137.9 | –0.4 | 2.1 |
| | 합계 | 169.9 | 275.1 | 264.5 | 226.8 | 147.9 | 143.5 | 144.4 | 121.9 | 89.1 | 104.7 | 83.8 | 154.9 | 114.3 | 118.6 |
| Barbados | 양자간 | 1.4 | 1.7 | 0.9 | 0.4 | 0.2 | 0.3 | –0.1 | 0.1 | 0.5 | 1.5 | 1.1 | 2.9 | 3 | 2.5 |
| | 다자간 | 1.5 | 0.7 | –0.4 | 3.7 | –1.0 | –0.9 | 4.7 | 4.2 | 15.2 | –3.5 | –0.8 | –4 | 0.5 | 17.5 |
| | 합계 | 2.9 | 2.5 | 0.5 | 4.1 | –0.8 | –0.7 | 4.6 | 4.4 | 15.7 | –2.1 | 0.3 | –1.1 | 3.5 | 19.9 |
| Belize | 양자간 | 19.3 | 18.9 | 16.4 | 17.2 | 16.7 | 15.1 | 22.2 | 11.3 | 10.1 | 37.6 | 4.1 | 11.2 | 16.9 | 4.3 |
| | 다자간 | 11.4 | 4.2 | 10.7 | 14.7 | 13.5 | 6.6 | 3.6 | 7.2 | 8.8 | 8.8 | 11.2 | 10.9 | 9.3 | 7.8 |
| | 합계 | 30.7 | 23.1 | 27.1 | 31.9 | 30.1 | 21.7 | 25.8 | 18.5 | 19.0 | 46.4 | 15.3 | 22.1 | 26.1 | 12.1 |
| Bolivia | 양자간 | 364.7 | 356.5 | 502.5 | 431.7 | 385.8 | 518.6 | 591.6 | 454.1 | 416.8 | 398.1 | 336.5 | 537.2 | 483.4 | 554.5 |
| | 다자간 | 182.6 | 149.6 | 168.7 | 132.8 | 183.3 | 200.5 | 240.4 | 246.5 | 212.3 | 171.4 | 138.3 | 198.9 | 198.2 | 376.1 |
| | 합계 | 547.3 | 506.1 | 671.2 | 564.5 | 569.1 | 719.1 | 832.1 | 700.6 | 629.1 | 569.5 | 474.8 | 736.2 | 681.7 | 930.6 |
| Brazil | 양자간 | 142.1 | 165.8 | –278.6 | 148.6 | 202.5 | 197.4 | 186.8 | 192.4 | 221.1 | 100.6 | 225.6 | 158.8 | 199.6 | 187.4 |
| | 다자간 | 13.4 | –1.4 | 24.8 | 52.7 | 50.6 | 72.4 | 98.9 | 95.4 | 114.9 | 87.6 | 98.4 | 191.1 | 131.0 | 110.2 |
| | 합계 | 155.5 | 164.4 | –253.8 | 201.3 | 253.1 | 269.8 | 285.8 | 287.8 | 336.0 | 188.2 | 324.0 | 349.9 | 330.6 | 297.5 |
| Chile | 양자간 | 83.4 | 105.6 | 117.9 | 159.2 | 132.5 | 143.3 | 182.7 | 114.3 | 96.4 | 64.9 | 42.1 | 40.7 | –12.9 | 63.1 |
| | 다자간 | 20.6 | 16.6 | 15.5 | 16.4 | 19.0 | 14.1 | 13.6 | 15.2 | 10.9 | 6.0 | 7.7 | 17.4 | 5.3 | 13.3 |
| | 합계 | 103.9 | 122.2 | 133.4 | 175.7 | 151.5 | 157.4 | 196.3 | 129.5 | 107.2 | 70.9 | 49.8 | 58.1 | –7.6 | 76.4 |
| Colombia | 양자간 | 86.7 | 117.7 | 221.5 | 85.4 | 66.7 | 161.2 | 160.1 | 172.4 | 162.2 | 294.0 | 179.8 | 373.7 | 428.6 | 769.5 |
| | 다자간 | 2.9 | –2.8 | 12.4 | 0.2 | 11.4 | 10.1 | 28.6 | 23.8 | 7.2 | 9.3 | 7.8 | 7.5 | 13.7 | 33.8 |
| | 합계 | 89.5 | 114.9 | 233.9 | 85.6 | 78.1 | 171.3 | 188.7 | 196.2 | 169.4 | 303.3 | 187.6 | 381.2 | 442.2 | 803.3 |

〈중남미 국가의 연도별 수원현황〉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 형태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Costa Rica | 양자간 | 209.2 | 174.0 | 146.2 | 107.9 | 81.2 | 42.5 | −8.6 | −4.7 | 23.6 | −2.6 | 18.8 | 7.4 | 6.2 | 33.0 |
| | 다자간 | 21.7 | 5.7 | 4.2 | 4.0 | 2.1 | 4.6 | 0.8 | −4.3 | 6.9 | −4.9 | −6.2 | −4.6 | −0.1 | −3.7 |
| | 합계 | 230.9 | 179.7 | 150.4 | 112.0 | 83.3 | 47.1 | −7.8 | −9.0 | 30.5 | −7.5 | 12.5 | 2.8 | 6.1 | 29.3 |
| Cuba | 양자간 | 69.7 | 44.2 | 11.8 | 14.4 | 18.7 | 33.7 | 27.0 | 32.6 | 57.4 | 36.2 | 31.5 | 34.5 | 50.5 | 60.3 |
| | 다자간 | 17.4 | 18.4 | 13.1 | 29.5 | 28.3 | 29.8 | 30.3 | 33.0 | 23.0 | 22.7 | 12.9 | 19.5 | 11.0 | 10.3 |
| | 합계 | 87.1 | 62.6 | 24.8 | 43.9 | 47.1 | 63.6 | 57.2 | 65.7 | 80.4 | 58.9 | 44.4 | 54.0 | 61.5 | 70.5 |
| Dominica Repulic | 양자간 | 74.9 | 69.1 | 56.1 | −18.5 | 38.1 | 83.8 | 59.7 | 31.7 | 61.5 | 152.5 | 44.7 | 102.3 | 138.6 | 60.8 |
| | 다자간 | 28.2 | 1.1 | 11.9 | 19.4 | 24.7 | 37.2 | 41.1 | 39.5 | 60.0 | 42.8 | 17.8 | 5.6 | 7.0 | 8.4 |
| | 합계 | 103.1 | 70.2 | 67.9 | 1.0 | 62.8 | 121.1 | 100.8 | 71.2 | 121.5 | 195.3 | 62.5 | 107.9 | 145.6 | 69.2 |
| Ecuador | 양자간 | 123.1 | 171.7 | 206.4 | 169.3 | 175.0 | 162.4 | 222.7 | 145.9 | 156.1 | 134.6 | 139.1 | 148.8 | 206.3 | 173.8 |
| | 다자간 | 38.3 | 68.7 | 37.4 | 67.2 | 38.6 | 65.6 | 38.3 | 11.7 | 23.5 | 17.1 | 8.6 | 25.1 | 10.3 | 2.5 |
| | 합계 | 161.4 | 240.4 | 243.9 | 236.4 | 213.5 | 227.9 | 261.0 | 157.5 | 179.6 | 151.7 | 147.7 | 173.9 | 216.7 | 176.2 |
| El Salvador | 양자간 | 314.0 | 245.3 | 316.6 | 286.1 | 238.9 | 245.8 | 240.7 | 246.1 | 157.0 | 174.8 | 173.5 | 232.6 | 220.1 | 172.0 |
| | 다자간 | 34.7 | 51.8 | 88.2 | 117.4 | 67.7 | 52.4 | 67.1 | 38.5 | 25.4 | 9.3 | 7.1 | 5.7 | 14.5 | 20.6 |
| | 합계 | 348.7 | 297.1 | 404.8 | 403.5 | 306.6 | 298.3 | 307.8 | 284.6 | 182.4 | 184.2 | 180.6 | 238.3 | 234.6 | 192.6 |
| Guatemala | 양자간 | 152.3 | 160.7 | 179.4 | 182.8 | 161.1 | 165.2 | 144.3 | 215.5 | 183.3 | 231.3 | 231.4 | 202.1 | 200.6 | 218.9 |
| | 다자간 | 51.3 | 39.5 | 18.3 | 32.0 | 59.9 | 46.6 | 50.9 | 50.4 | 50.9 | 62.3 | 32.8 | 25.0 | 48.6 | 29.6 |
| | 합계 | 203.5 | 200.2 | 197.6 | 214.7 | 221.0 | 211.8 | 195.2 | 265.8 | 234.2 | 293.6 | 264.2 | 227.1 | 249.2 | 248.5 |
| Guyana | 양자간 | 35.8 | 35.5 | 24.7 | 27.6 | 28.3 | 23.4 | 41.3 | 206.3 | 51.8 | 39.7 | 51.9 | 46.1 | 34.2 | 28.8 |
| | 다자간 | 132.9 | 94.3 | 64.8 | 79.4 | 50.7 | 62.7 | 100.7 | 58.4 | 41.1 | 39.9 | 55.4 | 51.4 | 30.8 | 57.9 |
| | 합계 | 168.8 | 129.8 | 89.4 | 107.0 | 79.0 | 86.1 | 142.0 | 264.7 | 92.9 | 79.5 | 107.3 | 97.5 | 64.9 | 86.7 |
| Haiti | 양자간 | 117.5 | 140.9 | 77.6 | 96.8 | 598.1 | 510.2 | 151.4 | 176.6 | 250.9 | 157.5 | 154.0 | 136.2 | 126.0 | 153.5 |
| | 다자간 | 51.2 | 39.7 | 24.9 | 26.4 | 4.0 | 215.8 | 218.8 | 148.8 | 156.2 | 105.7 | 54.4 | 34.7 | 30.0 | 46.4 |
| | 합계 | 168.7 | 180.6 | 102.5 | 123.2 | 602.1 | 726.0 | 370.2 | 325.4 | 407.1 | 263.1 | 208.4 | 170.9 | 156.0 | 199.9 |
| Honduras | 양자간 | 385.6 | 230.1 | 250.1 | 206.3 | 181.7 | 235.7 | 180.1 | 175.2 | 199.9 | 360.2 | 319.7 | 425.5 | 298.9 | 236.6 |
| | 다자간 | 64.7 | 75.2 | 146.2 | 134.2 | 115.1 | 171.3 | 191.0 | 131.4 | 123.2 | 460.6 | 134.8 | 255.3 | 136.5 | 153.0 |
| | 합계 | 450.3 | 305.3 | 396.3 | 340.5 | 296.8 | 407.0 | 371.1 | 306.6 | 323.1 | 820.8 | 454.5 | 680.7 | 435.4 | 389.6 |
| Jamaica | 양자간 | 260.5 | 151.9 | 112.8 | 91.6 | 73.8 | 67.1 | 3.6 | −5.3 | 3.4 | −20.9 | −13.5 | 20.6 | −4.7 | 1.6 |
| | 다자간 | 19.3 | 8.7 | 6.0 | 8.2 | 35.1 | 41.2 | 54.3 | 76.9 | 15.8 | 0.0 | 30.0 | 44.2 | 28.4 | 2.1 |
| | 합계 | 279.8 | 160.6 | 118.8 | 99.8 | 108.9 | 108.3 | 57.9 | 71.6 | 19.2 | −20.9 | 16.4 | 64.8 | 23.7 | 3.7 |
| Mexico | 양자간 | 144.8 | 261.1 | 300.9 | 397.0 | 396.9 | 365.1 | 274.3 | 90.0 | 5.1 | 22.9 | −67.1 | 41.8 | 93.5 | 75.3 |
| | 다자간 | 14.5 | 16.0 | 14.7 | 25.6 | 28.1 | 20.0 | 12.4 | 15.4 | 39.6 | 14.8 | 13.7 | 33.5 | 42.5 | 28.7 |
| | 합계 | 159.3 | 277.1 | 315.6 | 422.6 | 425.0 | 385.2 | 286.7 | 105.4 | 44.7 | 37.8 | −53.4 | 75.3 | 135.9 | 104.0 |
| Nicaragua | 양자간 | 328.5 | 702.8 | 475.5 | 276.0 | 419.6 | 494.4 | 769.1 | 263.8 | 337.7 | 324.3 | 326.7 | 715.5 | 291.8 | 531.1 |
| | 다자간 | 43.9 | 136.7 | 183.3 | 44.2 | 179.2 | 159.7 | 167.3 | 148.8 | 272.0 | 349.4 | 235.3 | 215.5 | 227.9 | 306.8 |
| | 합계 | 372.4 | 839.5 | 658.8 | 320.2 | 598.8 | 654.0 | 936.3 | 412.5 | 609.8 | 673.6 | 561.9 | 930.9 | 519.8 | 837.9 |

## 참고자료

| 국가명 | 형태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Panama | 양자간 | 98.0 | 112.9 | 196.1 | 77.4 | 33.7 | 35.9 | 50.5 | 52.8 | 23.0 | 15.5 | 27.9 | 38.4 | 24.6 | 32.0 |
| | 다자간 | 2.6 | −6.5 | −38.6 | −4.9 | −0.6 | 5.2 | 0.1 | −1.4 | −0.3 | −0.8 | −3.3 | 0.3 | −1.7 | −1.2 |
| | 합계 | 100.6 | 106.4 | 157.6 | 72.5 | 33.1 | 41.1 | 50.7 | 51.4 | 22.7 | 14.7 | 24.6 | 38.7 | 22.9 | 30.8 |
| Paraguay | 양자간 | 49.5 | 133.1 | 69.4 | 98.2 | 88.5 | 112.8 | 71.8 | 81.9 | 57.1 | 66.4 | 73.8 | 59.5 | 52.4 | 57.4 |
| | 다자간 | 9.0 | 15.1 | 31.0 | 33.0 | 8.7 | 30.3 | 21.7 | 32.5 | 20.3 | 12.1 | 8.5 | 2.5 | 5.1 | −5.7 |
| | 합계 | 58.4 | 148.2 | 100.4 | 131.2 | 97.2 | 143.1 | 93.5 | 114.4 | 77.4 | 78.6 | 82.3 | 62.0 | 57.5 | 51.7 |
| Peru | 양자간 | 354.8 | 600.6 | 378.4 | 514.6 | 295.3 | 327.8 | 279.0 | 366.4 | 384.7 | 407.3 | 377.6 | 428.2 | 467.7 | 454.1 |
| | 다자간 | 49.8 | 13.0 | 29.5 | 52.4 | 41.8 | 45.5 | 51.0 | 29.2 | 120.0 | 45.0 | 26.0 | 25.8 | 30.7 | 49.4 |
| | 합계 | 404.6 | 613.6 | 407.8 | 567.0 | 337.1 | 373.2 | 330.0 | 395.6 | 504.7 | 452.2 | 403.6 | 454.0 | 498.5 | 503.4 |
| Suriname | 양자간 | 51.2 | 31.8 | 73.2 | 75.0 | 57.7 | 70.5 | 102.4 | 69.8 | 52.3 | 30.2 | 29.2 | 20.0 | 7.7 | 4.1 |
| | 다자간 | 10.5 | 12.2 | 6.9 | 4.4 | 2.8 | 6.7 | 6.8 | 6.6 | 6.6 | 5.8 | 5.2 | 3.2 | 3.9 | 6.9 |
| | 합계 | 61.7 | 44.0 | 80.0 | 79.3 | 60.5 | 77.2 | 109.2 | 76.4 | 58.8 | 36.0 | 34.4 | 23.2 | 11.6 | 10.9 |
| T & T | 양자간 | 6.1 | −4.8 | −3.0 | −1.4 | −0.6 | −1.6 | −0.8 | −0.3 | −2.2 | 0.2 | 4.4 | 4.4 | 6.0 | 5.2 |
| | 다자간 | 12.1 | 3.1 | 11.0 | 3.4 | 22.1 | 27.1 | 17.9 | 33.5 | 16.0 | 26.1 | −5.9 | −6.1 | −13.1 | −7.4 |
| | 합계 | 18.2 | −1.7 | 7.9 | 2.0 | 21.5 | 25.5 | 17.1 | 33.1 | 13.8 | 26.2 | −1.5 | −1.7 | −7.1 | −2.3 |
| Uruguay | 양자간 | 41.7 | 38.4 | 60.1 | 108.1 | 67.8 | 57.6 | 29.7 | 31.0 | 20.9 | 20.1 | 16.8 | 12.4 | 13.7 | 13.1 |
| | 다자간 | 11.3 | 11.0 | 9.4 | 5.4 | 6.6 | 10.2 | 5.5 | 4.1 | 5.3 | 2.7 | 1.4 | 3.9 | 3.2 | 6.3 |
| | 합계 | 53.1 | 49.4 | 69.5 | 113.5 | 74.4 | 67.8 | 35.1 | 35.1 | 26.2 | 22.8 | 18.2 | 16.3 | 16.9 | 19.4 |
| Venezuela | 양자간 | 75.8 | 23.9 | 30.7 | 35.0 | 21.8 | 29.0 | 26.0 | −1.1 | 21.9 | 35.0 | 62.7 | 34.2 | 42.9 | 65.5 |
| | 다자간 | 1.8 | 5.3 | 3.5 | 6.4 | 5.2 | 14.9 | 12.1 | 10.4 | 20.7 | 9.8 | 14.6 | 10.9 | 14.6 | 17.4 |
| | 합계 | 77.6 | 29.1 | 34.2 | 41.4 | 27.0 | 43.8 | 38.1 | 9.4 | 42.7 | 44.8 | 77.3 | 45.1 | 57.5 | 82.8 |

자료: USAID, 「LAC Databook」(2004)